

이 세상 험하고.

제 아내는 지혜롭고 양순한 아내였습니다. 우로 총총시하에 시누이, 시동생이 있는 집에서 밤낮으로 일에 치어 살면서도 피곤한 기색을 나타내거나 낮을 쟁그리는 일이 없던 착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색한 노릇은 일요일마다 교회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가지 말라고 했고 다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에도 거역하는 일이 없던 아내가 그 말에만은 마이동통이었습니다. 남편인 나를 무시하고 놀리는 것 같아 화가 나서 드디어 아내를 손찌검하였습니다. 그렇게 실컷 맞은 날 밤에는 뒤결에서 아내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우리 집안의 불화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계속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딸들이 자라면서 엄마를 따라 일구월심 주일학교에 다닌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들까지 때렸더니 애들의 입에서까지 “이 세상 험하고..”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매를 흠씬 맞으면서도 애원하기를 “저는 당신이 예수를 만나시기만 한다면 이 매의 백 매를 맞더라도 괜찮겠어요. 부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도대체 예수가 어떤 자이기에 아내 속에서 저토록 쇠심줄처럼 버티고 있을까..

그 수수께 기가 풀리지 않은 채 6.25가 터졌고 나는 인민군 장교로 참전하여 전투 중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한밤중 포로들끼리 포개서 누워 있다가 아내 생각에 눈물 흘리던 나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 험하고..’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다 끝나기 전에 보초가 조용히 다가와 나를 일으키더니 어디인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슴 조이며 간 곳은 포로수용소 본부의 장교 앞이었습니다.

“당신 크리스천이오?”

“아, 네. 아내가...”

“당신 예수를 믿소?”

“아, 네.”

그리고 장교들은 미군 장교와 무엇인가를 의논하더니 저를 수용소에서 돌려 포로들을 돌보게 했고 뒷날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후 신학교에 입학했고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홀몸으로 아내가 살아 있을 북한 땅을 향하여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찬송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이 천년 교회생활' '주일에서 매일중심 신앙'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 2권 38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0년 9월 17일
☎269-8677/021-292-1639,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내가 교회가 싫은 이유>

교회 안에 왜 교파가 그리 많은지

Q) 교회생활을 하다보니 분쟁과 종파가 많아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 교회다기기를 그만두었습니다.

A) 분쟁이나 파벌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인 '순종'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에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분쟁처럼 드러난 것도 다지고 보면 개신교의 언로가 그만큼 열려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 방법들이 세련되지 못하여 은혜롭지 못하게 만드는 수는 있지만 내분의 내용도 서로가 발전적이고 상향적인 가치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나 모양새만 보려 하지 말고 그 속에 흐르는 참뜻을 들여다보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호의견 제시가 자유롭고 불만의 표출이 자유롭다는 것은 그 열린 언로가 아직은 음지에 있지 않고 양지에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언로가 열려 있으면 다소 시끄럽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곰팡이가 필 염려는 없겠지요.

사실 우리 나라처럼 다양한 교파를 구성한 나라도 드뭅니다. 유교, 불교 일색인 우리 나라, 거기다 좁은 땅이지만 산악지대와 강이 많아 지역적 특성이 서로 많이 달랐던 나라에 유럽 각국 선교사들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서 들어와 다양한 출신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일제의 혹독한 시련기와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의 주민이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응용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파의 다양성이 바로 개신교 발전의 활력소가 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헤아려야 합니다. 획일로 인한 침체나 딜레마보다는 다양성이 서로 경쟁하며 공존 발전하는 쪽이 오히려 역동적 소지가 많기에 개신교는 많은 성장을 가지고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37 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2. (시 2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336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조순정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계 2:18-29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절제되지 않은 사랑! 두아디라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87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 9월 예배 위원 >

일 자	안내, 헌금	기 도	teatime봉사
9월 3	김시욱, 장선주	송 정 섭	김수하, 이상욱
10	이선우, 조순정	김 교 섭	이영권, 지윤수
17	지윤수, 김 효	조 순 정	이경석, 김시욱
24	김교섭, 정희자	이 선 우	김성국, 최윤희

'이천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사항>

\*개인과 가정: 매일 1/2성경읽기, 가정예배

\*교 회: 화요새벽기도회

\*선 교: 결식아동 3배지원, 해외선교지원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30pm(ST.Stephens)

화요새벽기도: 6:00

### 교 회 소 식

#### 1. 성경완독 1년계획

\*지난 주간 창세기를 완독표에 따라 다 완독하신 성도께서는 표를 함에 넣어 주시  
기를 바랍니다(이름은 뒷면에 기입)

#### 2. 청년기초성경공부(4번 제)

\*화요일(19일). \*시간: 7:00pm \*장소: 교회

\*대상: 청년중 금년도 등록자( 이상욱, 정재정, 이미리, 이성희, 김수하)

#### 3. 중고등부 모임

\*중고등부 모임을 아동부와 같은 시간에 모입니다

\*교사: 최유나 선생

\*장소: 친교실 2층 room

#### 4. 장년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3기)

\*일시: 10월 8일(화)-10월 29일(매주 화요일) 저녁 7:30

\*장소: 교회

\*대상: 등록번호 10번 이후부터

#### 5. 부부성가대 콘서트를 위한 성가대원 모임

\*성가대 연습후에 모입니다

#### 6. 9월의 교회력

\*3일(주일) 이삭줍기 봉헌 \*8월29일부터 매 화요일: 청년기초성경공부

\*4일(월)부터 성경완독 1년계획시작

\*8일(금): '약속의 아버지' 첫모임

\*26(화) 장년부 기초성경공부

#### 아버지가 아들에게

##### TV 드라마

인생을 재미있게 살려면 많이  
들어 주어라. 종종 TV 드라마  
가 재미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  
무말도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  
를 듣고 보기 때문이다

#### 엄마가 딸에게

##### 한 믿음을 가진 부부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  
함께 기도하는 부부는 해로하  
게 된다